



March 8, 2017

Global

미 국립아카데미, 생명공학(GE)작물 보고서에 대한 Plos one 문건에 관한 성명서 발표

미국립 과학아카데미(U.S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는 2016년에 발표된 생명공학(GM)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한 국립아카데미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이해 상충이 있다고 주장한 PLOS One 관련 기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립아카데미의 성명서에 따르면, 그들은 엄격하고, 명확하며 투명한 이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약 1,000여 개의 출판물을 검토하고, 3번의 공개 회의와 15번의 웹 세미나를 개최하여, GM작물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대중의 의견 구했다. 이 보고서는 최종 발표 전에 엄격하고, 대외적이며, 익명의 공동 심의과정을 거쳤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사려 깊은 연구를 하는데 헌신하는 우리의 위원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또한 국가는 많은 시간을 자원하여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 및 대중 담론을 알리기 위해 증거 기반의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위원회를 지지하며 이 보고서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는 특히 보고서가 전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자랑스럽다. 현재까지도 전세계 169개국에서 이 보고서를 33,618 회의 다운로드가 되었다”고 국립아카데미 성명서는 지적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ational Academies](#)

Africa

스와질란드 의회, GMO 바이오안전성 법안 제정에 노력

스와질란드 의회는 GM면화 재배를 가능케하는 바이오안전성 법안 제정을 확립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것은 2017년 2월 23일 Big Bend의 스와질란드 면화 보드 시험포장에 있는 GM면화 시험포장을 방문 중에 농업의회의장인 Titus Thwala 박사가 말한 것이다.

“의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자국 내에서 GM작물 재배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법안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 라고 Thwala 박사가 밝혔다. GM면화의 형질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이번 투어에는, Veli Shongwe 의장이 주도하는 관광환경부의 하원의원들도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2016년 11월 연구견학을 위해 인도를 방문했다가 최근에 참여한 다른 아프리카 대표단의 2개의 포토폴리오 위원회의 후속 활동의 일환이었다. 인도 연구 투어 중 그들은 GM 면화 기업 하나인 JK Agri Genetics Ltd.(JK Seeds)를 만났습니다. JK의 회장이자 책임자인 Sanjay Kumar Gupta는 스와질란드의 GM면화 생산을 권유했으며, 이번 기회를 잡으면 스와질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면화 수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또한 스와질란드 전국 농업 연합 사무총장인 Jabuleni Tsabedze도 참석하였으며, 그는 GM면화의 우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밝혔다. 그는 하원위원들과 함께 생명공학기술의 성공적인 도입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mmkhatshwa@cottonboard.co.sz / ceosec@cottonboard.co.sz

Asia and the Pacific

영양 전문가,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GM 작물이 도움이 돼

몬산토 글로벌 보건 및 영양 지원사업 책임자인 Milton Stokes 박사는 2017 3월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GM작물이 필리핀 국민의 영양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박사는 “비타민 A 결핍증(VAD)을 퇴치하기 위한 베타카로틴 생합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황금쌀(Golden Rice)과 같은 작물들은 연간 100~200만 명의 사망자와 50만 명의 실명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GMO가 일반 작물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영양도 충족시킨다고 강조했다며, “GM작물을 연구하고 개발한지 30여 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1,000여건 이상의 연구 모두 에서도 GM작물이 기존 육종으로 개발된 작물만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고 덧붙여 말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GM작물의 안전성과 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Stokes박사는 정부기관들이 GMO를 검토 및 승인하고 있으며, 필리핀과 같은 여러 국가에서의 다수의 기관들이 GM 규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harina.garrido.ocampo@monsanto.com

Americas

보고서, 볼리비아에서 생명공학콩과 옥수수 도입으로 1억 5,000만 달러 창출

유지작물 및 밀 생산자 협회 (Association of Producers of Oilseeds and Wheat), 볼리비아 대외 무역연구소(IBCE), 그리고 동부 농업회의소(CA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볼리비아에서 생명공학 콩과 옥수수의 도입함으로써 자국 내 1억 1,5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GM콩과 옥수수로 인한 볼리비아의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Socioeconomic Impact and Environment in Bolivia from Genetically Improved Soy and Maize*)" 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2005년 볼리비아에 최초로 도입된 GM작물인 글라이포세이트 저항성 콩 사용에 대한 10 년간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생명공학작물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볼리비아에 총 177,000 달러를 절감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지난 4번의 경작해 동안 볼리비아의 생명공학옥수수 생산은 파라과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IBCE 책임자인 Gary Rodriguez에 따르면, 생명공학콩 도입으로 살충제의 사용을 줄여서 연간 6,6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20만 톤으로 늘어나 연간 5,000만 달러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생명공학옥수수 도입도 역시 제초제의 사용을 줄이고, 87,000톤의 생산량이 늘어나 1,100만 달러의 수입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도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000톤으로 감소하고 1억 2,000만 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었다.

보고서를 다운로드 하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port](#)
스페인어로 된 보고서를 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os Tiempos](#)

Announcements

플로리다대 식물과학 심포지엄

주제: 플로리다대 식물과학 심포지엄

장소: 미국, 플로리다, 게인스빌, 플로리다대학, 암유전학연구소

일시: 2017년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심포지엄 등록은 무료이며 진행 중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ymposium website